

2023 년 10 월 1 일 “(그리스도 예수) 나를 따르려거든”(마 16:24-27)

모든 교회는 다양하지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한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고백에 합당한 제자의 모습을 말씀해 주십니다(24 절).

[1] 자기를 부인하고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절대로 고난 당하고 죽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22 절). 이에 주님은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자기입니까? 하나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자기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그리스도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열고 성찰하는 훈련을 통해서입니다. 누구나 주님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참 회개가 가능합니다.

베드로의 다른 일화를 보면, 주님이 붙잡혀 끌려 다니며 수모와 고초를 겪으실 때, 베드로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길을 가시는 모습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상황이 무서웠을 뿐입니다. 도리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죠.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이런 회개가 무척 중요합니다. 차라리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부끄럽게 드러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나를 발견하고 참으로 주님께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때 로마의 십자가 처형은 극형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죄의 크기와 심각성을 뜻하며, 십자가 처형은 자기의 죄 속에서 죽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radical 합니다. 인간이 죄 속에서 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음 당하시고, 사흘만에 살아나심으로 하나님께서 죽음의 무덤 속에서 일하셔서 생명의 꽃을 피우심을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사람의 잘남이나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의 죄와 죽음을 통해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깨우치면 죄 속에 은혜를 부으셔서 장점이 아닌 죄와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됩니다. 이 이유로 인해 앞서가신 주님의 십자가가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며, 주 보혈의 은혜가 영생(생명다운 생명)으로 인도함을 알게 해줍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살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성찬에 임할 때, 본문의 제자도의 말씀을 바르게 새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눔의 질문>

1. 나는 자기부인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요?
2. ‘자기 십자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